

## 기도

1.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2. 믿음으로 사는 현장 속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 신앙

### 다윗 왕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지파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맺었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궁정에서 도망가 광야에 몸을 숨길 때도 있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



# 구역 공과

2023년 7월 30일

##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9절 (찬28장, 384장)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5-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a). 여기서 길이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방법은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5절b).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세상 일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자의 마음과 행위가 믿음의 것이 되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오의 빛은 가장 강하고 확실한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와 공의를 행할 때마다 그것이 강한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위로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고침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까지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 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능력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출14:13-14). 모세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오의 빛이 비추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오의 빛을 비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7-9절).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첫째, 참고 기다립니다(7절)**.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농부도 열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둘째,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8절)**.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분을 그치게 되고, 노를 버리게 됩니다. 마음 속에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장합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셋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9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믿음을 위해 쓰게 되고,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었던 요나단과 같이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부분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분명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며 나아가면 빛을 비추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평안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